

지역 간 주의와 Track 2 외교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한 인택
(제주평화연구원)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집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지역 간 주의와 Track 2 외교

한아세안 협력증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

▶▶▶ | 목차

1. 서론	8
2.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11
3.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15
1) 지속가능한 한아세안 협력을 위한 조건	15
2) 아세안과의 협력은 아세안의 방식으로	17
4. 정부 간 협의체와 민간 협의체의 협력사례	20
1) ASEAN과 ASEAN ISIS	20
2) ARF와 CSCAP	23
3) 아세안+3와 NEAT	24
4) APEC와 PECC	27
5. 싱크탱크를 활용한 한아세안 협력증진 방안	28
정책제안 : 한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 (가칭 ASEAN-ROK ISIS) 구축	
6. 마치며	32
참고문헌	33

한아세안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서 아세안 국가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협력의 전통과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협의, 합의, 비공식주의를 존중하는 협력의 전통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협력은 민간차원의 협력에 의하여 보완되고 심지어 견인되었다. 앞으로 한아세안 협력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협력을 지원하는 민간협의체를 육성하여 정부차원 협력과 민간차원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ASEAN과 ASEAN ISIS, ARF와 CSCAP, 아세안+3와 NEAT의 협력사례를 참고하여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칭 ASEAN-ROK ISIS)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한아세안 정부협의체와 민간협의체 간 협력체제가 구축되면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지지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그만큼 한아세안 협력도 더욱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신남방정책, ASEAN Way, Track 2 외교, ASEAN-ROK ISIS

1. 서론

“한아세안경제협력,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¹⁾

경제학에서는 국가 간, 지역 간 무역량을 잘 설명하는 모델로서 ‘중력모델(gravity model)’이 사용되고 있다. 두 물체 간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리고 두 물체의 중량이 크면 클수록 두 물체 간 중력이 증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역도 국가 또는 지역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상식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인데 경제학자들은 굳이 ‘모델’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연구하는 이유는 이 모델이 갖는 예측력 때문이다. 잘 구축된 모델에 두 국가 간, 지역 간 거리와 소득을 대입하면 무역량이 예측되는데 실제 무역량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가 나온다. 정교하게 구축된 중력모델은 국가 간, 지역 간 무역패턴을 잘 설명할 수 있다.

중력모델을 사용한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아세안과의 무역은 ‘중력’이 아니라 ‘반(反)중력’에 의하여 지배받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중력모델에 의해서 예측되는 무역량과 실제로 발생하는 무역량을 비교해 보면 실제무역량이 예측(잠재)무역량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아세안 국가 사이에는 둘 간의 거리나 소득을 통해 예측되는 것보다 실제무역량이 훨씬 많다. 이는 최근 현상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다. 한국은 1999년에 아세안의 부분대화상대국(sectoral dialogue partner)이 되었는데 이미 그때부터 이러한 경향은 관찰된 바 있다.²⁾ 2000년 무역을 기준, 싱가포르의 경우는 실제수출이 잠재수출의 588%에 달하였고,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도 실제수출이 잠재수출의 312%에 달했다. 더군다나 그 이후로도 지난 20년간 한아세안 무역이 약 20배 정도 더 증가하였으니 한-아세안 간 무역은 중력모델로서는 설명하기 힘들다.

1) 11월 12일 제주평화연구원이 주최한 신남방정책 국제학술회의에서 박변순 교수의 발언

2) “국제무역과 지경학적 위치: 중력모형(Gravity Model)의 적용,” 한국무역협회(2001)

<주변 4강과 비교한 한아세안 교류 관계>³⁾

한국과 무역 (2016)		한국의 투자 (2016)		외국인 입국 (2016)		한국인 출국 (2016)	
국가	무역액 (백만불)	국가	투자액 (백만불)	국적	인원 (천명)	국가	인원 (천명)
중국	211,413	미국	12,905	중국	8,067	<u>아세안</u>	<u>6,397</u>
<u>아세안</u>	<u>118,839</u>	<u>아세안</u>	<u>5,136</u>	일본	2,297	일본	5,090
미국	109,678	중국	3,301	<u>아세안</u>	<u>2,174</u>	중국	4,762
일본	71,821	일본	274	미국	866	미국	1,973
러시아	13,409	러시아	110	러시아	233	러시아	161

그런 결과로 아세안은 이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우리의 2위의 상대국(지역)이 되었다. 아세안은 무역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앞지르고 있고, 투자에서는 중국과 일본을 앞지르고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아세안 국가들보다는 훨씬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미국, 중국, 일본의 경제규모가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규모를 훨씬 능가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아세안이 무역과 투자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2위 상대자라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무역과 투자뿐만 아니다. 한아세안 간 인적왕래도 활발하다. 아세안과의 거리와 아세안의 소득수준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과는 대단하다고, 심지어 기형적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발언은 전혀 의외가 아니다.

물론 한아세안 경제협력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세안측에서 아직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한아세안무역에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흑자를, 아세안은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 무역불균형이 지속되고 확대되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정치적, 외교적으로도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의 상품이 아세안 시장을 잠식하는 만큼 아세안의 기업이 어려워지고 실업자가 발생해서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무역과 투자가 베트남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거시적으로 한아세안경제협력 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미시적으로 보면 한베트남 경제협력 이 급증한 것이고 나머지 아세안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은 뒤쳐지고 있다. 물론 한베트남 관계가 현재 매우 좋고, 베트남은 훌륭한 투자처이다. 하지만 무역이나 투자를 한 나라에 올인하는 것은 위험관리나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기왕이면 아세안 국가들과 두루두루

3) 이재현. 2018.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8-04. 4쪽에서 재인용.

<Korea-ASEAN trade>

(Unit: US\$Million)

	2010	2013	2016	2017	2018.9
Export	532	820	745	952	735
➢ ASEAN-6	426	595	404	461	367
➢ Vietnam	97	211	326	478	358
➢ CLM	9	15	15	13	9
Import	441	533	443	538	440
➢ ASEAN-6	405	455	311	368	289
➢ Vietnam	33	72	125	162	144
➢ CLM	3	6	7	8	6
Balance	91	287	302	414	295
➢ ASEAN-6	21	140	93	93	78
➢ Vietnam	63	139	201	316	214
➢ CLM	7	9	8	5	3

Source: Korea,KITA

출처: Park Bun-soon, “Korea-AS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Promotion”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한아세안관계는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활발하며, 앞으로 필요한 것은 그저 불균형의 해소정도로 보인다.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을 늘리든지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면 아세안에 대한 수출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아울러 현재 대아세안 무역의 50%가 베트남과 이루어지고 있는데, 베트남뿐만 아니라 다른 아세안국가들로 경제협력관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제학에서 국제정치학으로 관점을 바꾸면 한아세안관계가 지금 보다 훨씬 더 발전되고 더 긴밀해져야 할 필요성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선, 아세안은 우리와 특별한 갈등이 없고, 우리랑 공유하는 가치와 우려가 많다. ‘가까운’ 이웃(중국과 일본)보다 덜 문제가 되고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먼’ 이웃이 아세안이다. 중국이 날로 강성해지고 자기주장도 강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근공(近攻)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교는 우리 외교의 포트폴리오(portfolio)에서 필요하다. 아세안은 지정학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원교(遠交)를 펼쳐야 하는 대상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경제적 마인드에서 “이보다는 더 좋아야 한다”는 외교적 마인드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문제는 우리보다 국력이 월등한 중국과 미국이 각기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태평양 구상’을 앞세우고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구애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아세안협력을 증대시키려고 하여도 기대만큼 아세안의 관심을 끌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보다 국력이 열세이고 아세안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인이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력의 열세와 유인의 부족을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한아세안 협력을 증진하는 전략을 잘 기획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신남방정책과 아세안

현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외교는 ‘평화’의 축과 ‘번영’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북아 내에서는 ‘동북아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평화’를 실현하고, 아세안, 인도, 유라시아와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여 ‘번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구상이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의 요체는 ‘외교의 다변화’라고 할 수 있다.⁴⁾ 그간 우리 외교는 이슈로는 북핵문제에, 대상국가로는 미중일러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은 우리 외교의 지평을 이슈나 지역적으로 넓히는 것이다. 외교의 다변화는 지역에 따라서 시장의 다변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신북방정책에서 러시아 연해주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나 신남방정책에서 인도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시장다변화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아세안의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이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아세안을 대상으로 하는 신남방정책은 시장의 다변화보다는 본래 취지대로 외교의 다변화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⁵⁾ 한국과 아세안 간에는 지난 수십 년간의 활발한 무역과 투자를 통해서 유망한 무역이나 투자 기회는 많이 소진되었고 지금은 주로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거나 어려움이 있는 기회들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투자가 집중된 베트남 일부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⁶⁾ 따라서 무역이나 투자의 확대를 통한 번영의 추구도 좋지만 사고를 전환하여 아세안과 번영을 ‘공유’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 하다. 아직 경제가 낙후된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개발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나 무역과 투자를 다변화하여 베트남 이외의 국가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번영을 공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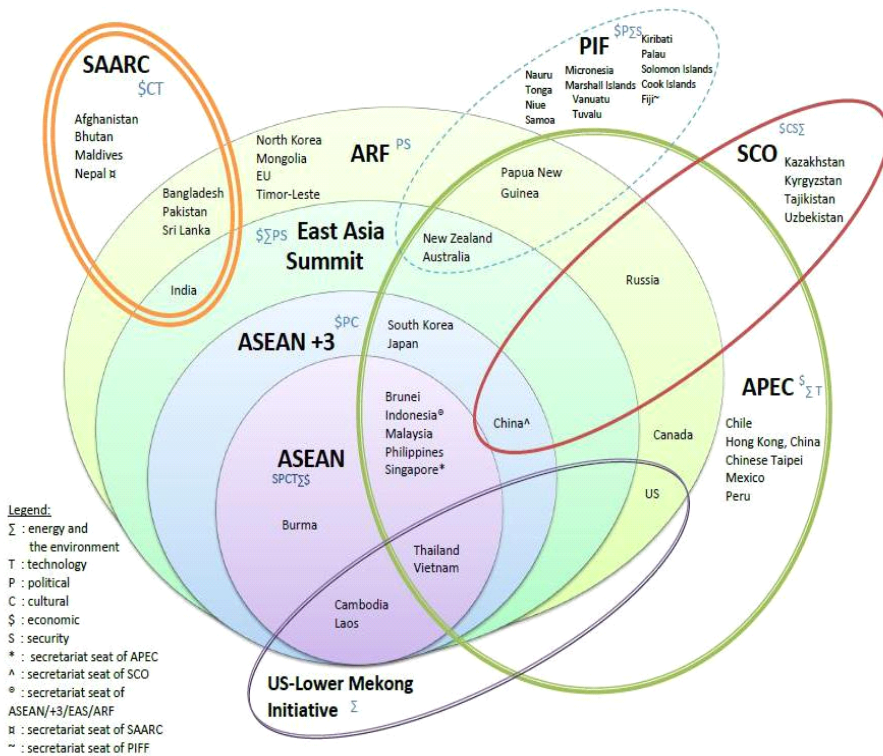
아세안과 관련해서 ‘외교의 다변화’란 아세안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에 걸맞은 한 아세안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남중국해 문제로 아세안 내 결속성이 약화되고 있지만 아세안은 여전히 동아시아 지역 외교의 중심에 서 있다. 아세안 + 3를 비롯해서 RCEP, EAS, ARF, ADMM+는 모두 아세안을 중심에 놓고 있고, 이외에

4) 최원기, “신남방정책 3대 비전과 ‘경제·외교의 다변화,’”

<http://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55848&pWise=people0>

5)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대통령비서실경제보좌관인 점은 신남방정책이 외교의 다변화보다는 무역과 투자의 확대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낳게 한다.

6) 지역적, 산업적 다각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양미,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와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지역 변화,” 『대한지리학회지』 제52권 제4호 2017(435~455)을 참고.



출처: <https://www.cogitasia.com/a-new-paradigm-for-apec/>

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비롯해서 아세안을 중심에 놓은 제도나 과정이 다수이다.⁷⁾

무역과 투자 파트너로서 2위인 아세안,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 외교에서 중심(centrality)이 되고 주도적 역할(driver's seat)을 하고 있는 아세안의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주변4강과 비견될만한 관계를 아세안과 수립하자는 것이다.

아세안을 주변 4강과 같은 관계에 놓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대답은 이미 내려져 있다고 할 수 있다. 대통령은 작년 11월 필리핀에서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 것이라고 연설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8월에 출범한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신남방정책의 ‘비전,’ ‘3대 목표,’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공개하였다.

⁷⁾ Mely Caballero-Anthony, “Understanding ASEAN's centrality: bases and prospects in an evolving regional architecture,” *The Pacific Review*, Volume 27, No. 4 (2014)

<신남방정책 : 비전, 3대 목표, 16개 추진과제>⁸⁾

비전

‘아세안과 사람(people) 중심의 평화(peace)와 번영(prosperity)의 공동체(3P 공동체)’

3대 목표

- (1) ‘교류 증대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
- (2)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경제협력 기반 구축’
- (3) ‘평화롭고 안전한 역내 안보환경 구축’

16개 추진과제

- ‘사람 공동체’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 (1)상호 방문객 확대, (2)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3)인적 자원 역량 강화 지원, (4)공공행정 역량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5)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증진, (6)삶의 질 개선 지원
- ‘상생번영 공동체’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 (1) 무역·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2)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3)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4)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 성장 역량 제고, (5)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 ‘평화공동체’ 구축을 위한 추진과제:
 - (1)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2)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3)국방·방산 협력 확대, (4)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5)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16개 추진과제는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이행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1번 추진과제(“상호 방문객 확대”)의 경우, 추진목표로는 “신남방 지역 국민의 방한 관광객을 확대,“ 이행방안으로는 ”한국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홍보 확대, 국내 여행 환경 개선(무슬림 방한 관광 만족도 제고, 비자 간소화 등“이 제시되어 있다. 나머지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과제별로 구체적인 추진목표와 이행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8)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 「신남방정책 추진전략」(2018년 11월 8일). 최경희, “2019년 한아세안 관계 30주년과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세션: 한아세안 협력’ 발제문(2018년 12월 7일 서머셋 팰리스)을 토대로 재구성.

아울러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는 신남방정책의 추진체계(주체)로서 아세안 지역에서는 주아세안대표부 등 재외공관, 현지 진출 기업, 정부 유관 기관 등을, 국내에서는 국회 한아세안 포럼, 시도지사협의회(정관계), 대한상의, 무역협회, 아세안·인도 진출 기업인 그룹 등(경제계), 국립외교원, KIEP, 동남아연구소·학회, 민간 전문가 그룹(학계), 시민단체, KF 등을 언급하고 있다.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아세안을 주변 4강과 같은 관계에 놓는 것과 반드시 동일한 의미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하지만 아세안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비전은 한-아세안 관계의 격상에 기여할 것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지금의 과제는 우선 신남방정책의 ‘비전’ 과 ‘3대 목표’가 달성되고, ‘16개 추진과제’가 잘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이 ‘지속가능’해져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3.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의 필요성과 방향⁹⁾

동남아 외교가에서는 “한국외교는 북핵외교밖에 없다”는 인식이 그간 지배적이었다. 아직도 그러한 인식이 동남아 외교가에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정부에 들어서 는 우리의 외교를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개념이나 구호를 넘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실천되고 있어서 조금씩 한국외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만큼 한아세안 협력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시도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외교를 연구해온 전문가들에 의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초기에는 대개 아세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다가 점차 아세안은 뒷전에 밀리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고 한다. 특히 북핵위기가 발발하거나 한일관계가 복잡해지면 아세안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어지곤 하였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서는 대통령이 몸소 한아세안 관계에 관심을 보이고 있고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가 발족되어 구체적이고 상세한 추진전략도 마련된 만큼 한아세안 관계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진정성은 아세안측에 어느 정도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특히 차기 정부에서도 이번 정부와 같이 적극적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여러 가지 지표로 보아 아세안이 전통 4강에 준하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만 과거 정부의 정책에 있어서나 예나 지금의 국민의 인식에 있어서 아세안의 중요성은 전통 4강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현 정부의 아세안 중시정책이 제대로 지지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없는 외교는 장기적으로 추진력을 갖기 힘들다. 신남방정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1) 지속가능한 한아세안 협력을 위한 조건

신남방정책이 지속가능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에 대한 통상적인 대답은 신남방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신설을 포함한 추진체계의 구축이다. 신북방정책의 경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있어서 대외적으로 다양한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

9) 이 절의 내용은 한인택,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 필요성과 방안,” JPI PeaceNet (2018.11.12)에서 간략히 소개된 바있다.

다. 신남방정책의 경우에는 정책컨트론타워나 대내외 소통협력 창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남방정책을 주도할 조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¹⁰⁾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의 발족은 그러한 요청에 대한 부분적인 대답인 셈이다.

하지만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가 신남방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이다. 그리고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든 다른 조직이든 신남방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충분한 권한과 자원을 가진 추진기구가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신남방정책이 지속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 정부가 바뀌게 되면 추진기구가 해체되거나 설사 추진기구는 존치되더라도 추진력이 상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외교적 이익을 증진하는 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그 추진력이 정부에서만 아니라 민간으로부터도 나와야하고 우리나라 혼자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 혹시라도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심이나 비전이 약화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우리나라의 민간부문에서 나서서 한아세안협력을 촉구하거나 아세안쪽에서도 한아세안협력에 관심을 갖고 우리에게 협력을 촉구하면 궁극에는 정부도 관심과 의욕을 갖고 협력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신남방정책이 지속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지지기반을 넓히는 것이 필수적이다. 신남방정책 특별위원회가 신남방정책의 추진주체로서 아세안 지역에서는 재외공관, 현지 진출 기업 등을, 국내에서는 정관계,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등을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신남방정책의 국내적, 국제적 지지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연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아세안 지역 내 추진주체, 그리고 국내 추진주체들을 상대로 신남방정책에 지지기반을 넓힐 수 있을까? 특히 우리나라가 아니라 아세안의 행위자들이 신남방정책을 지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에 대한 통상적인 해답으로 전통적 외교의 강화, 공공외교의 강화, 특히 정책공공외교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 외교의 강화나 공공외교의 강화가 틀린 대답은 아니라 개선될 수 있고 또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주장이다.

10) 예를 들어서 광성일 외, “한·인도, 한·싱가포르 정상회담 성과와 신남방정책의 과제,”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29 (2018년 8월 6일)을 참고.

2) 아세안과의 협력은 아세안의 방식으로

담당조직이 있어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든 아니든 아세안과의 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아세안 국가들이 서로 어떻게 협력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ASEAN Way

우선, 아세안 국가들은 ASEAN Way라고 불리는 방식을 통해 동남아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여 왔다. ASEAN Way는 단일하게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대표적인 특징으로 ‘협의,’ ‘합의,’ ‘비공식주의’를 들 수 있다.¹¹⁾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우리식으로 협력을 추진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현지의 관습이나 전통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신남방정책의 추진 전략을 구상하고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도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의하면서 같이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견을 청취하고 상의하는 것은 꼭 공식적인 정부 간 협의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아세안 각국의 정부로부터 명망가를 추천받아서 그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협의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는 과거 EAVG, EASG가 구성된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아세안은 ‘협의,’ ‘합의,’ ‘비공식 주의’를 중시하는데, 세부적 목표나 이행방안까지 우리가 미리 정해 놓고 아세안 정부와 국민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건 우리식 협력방식이 아닌 아세안식의 협력방식이 아니다.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신남방정책의 입안에서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가급적 ASEAN Way를 적용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런 면에서 ‘한-아세안 인프라장관회의’의 발족이나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개최는 긍정적인 현상이다.¹²⁾ 만약 신남방정책 추진과제별로 한아세안 공동위가 설치되어 한아세안이 같이 협의할 수 있으면 이상적일 것이다.¹³⁾

11) 아세안의 의사결정방식의 특성에 관한 심층연구로 강대창 외, “ASEAN의 의사결정 구조와 방식,” 『KIEP 전략지역심층연구』, 11-06 가 유용하다.

12) “한-아세안 10개국 인프라 협력 선언...신남방정책 '박차,’” 『연합뉴스』 (2018/09/16), <https://www.yna.co.kr/view/AKR20180916014400003> ; “제3차 한-아세안 과학기술공동위원회 개최,” 보안뉴스(2017/05/31),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55024>

13) 한사우디관계에서는 '한사우디 공동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매년 양측의 외교부장관, 경제부처 장관, 국책연구원장 등이 만나서 현안 과 협력방안 논의한다. 사우디가 '사우디 비전 2030' 이라는 국가발전계획을 추진하자 한사우디 공동위원회에 추가하여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가 신설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발전계획에 한국이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정기적으로 논의하

Track 2 외교

아세안 국가 간 국제협력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민간차원(Track 2)의 협력이 정부차원(Track 1)의 협력을 보완하거나 심지어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안보분야에서 이러한 특징이 두드러져서 먼저 민간차원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한 후 합의된 내용을 아세안 국가의 정부에 권고하면 정부에서 민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민간전문가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 간의 ‘정책대화’를 ‘Track 2 외교’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지만 동남아에서 특히 현저하게 나타난다.¹⁴⁾

협이나 합의(ASEAN Way), 그리고 민간전문가와 개인의 자격으로 참여하는 관료와 정치인들 간의 ‘정책대화’(Track 2 외교)는 종종 비판자들이 Talk Shop이라고 조롱하는 회의장에서 이루어진다. Track 2 외교와 Track 2 대화 또는 Track 2 회의를 자주 동의어처럼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동북아의 관점에서 보면 동남아에서는 무의미하고 실익이 없는 대화와 회의가 연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사이에 동남아국가들은 안보공동체를 이루어냈다.¹⁵⁾

동남아의 경험을 보면, Track 2 외교는 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정부공식(Track 1) 외교를 선도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¹⁶⁾ 대표적인 사례로 ASEAN Regional

고 있다. 또 ‘한사우디 비전2030 위원회’ 개최를 계기로 재계 인사들의 모임(한사우디 비즈니스 포럼)이나 상담회가 열리기도 한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발전소에 관심을 보이자 ‘한사우디 원자력공동위원회’도 신설되었다. 협의와 합의를 중요시하는 아세안의 협력방식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부 간 협의채널이 앞으로 한아세안관계에도 많이 생겨날 필요가 있다.

14) KIM BENG PHAR, “Asia's Informal Diplomac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May 6, 2001)

15) 김달중 서울대 명예교수는 나폴레옹 전쟁 후 개최된 빈 회의가 당시에는 ‘회의는 춤춘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빈 회의 이후로 1차 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1세기 동안 유럽에서 커다란 전쟁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현대식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각국의 지도자들은 같이 춤추고 즐기는 동안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신뢰구축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6) Track 2 외교는 아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로, 정부에 대한 조언과 자문은 Track 2 외교의 중요한 공헌이다. 특히 민간전문가들이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힘든 장기적인 문제라든가 정부가 아직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대해 조언과 자문을 할 때 가장 유용한 공헌을 한다.

둘째로, Track 2 외교를 통해서 너무 새롭거나 민감해서 Track I 외교에서는 다루기 힘든 아이디어를 창안하거나 검증해 볼 수 있다. 즉, 외교적 ‘실험실’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례로 ARF 은 CSCAP에 Track I 외교를 통해서 다루기 힘든 preventive diplomacy를 정의하고 실행방안을 찾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셋째로, Track 2 외교는 Track I 외교가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외교적 대안 통로(route)로 기능할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는 Track 2 외교의 측면이다. 만약 6자 회담을 보완하는 Track 2 대화가 자리를 잡고 있다면 6자 회담이 중단되었을 때도 Track 2 대화를 통해서 당사국 간의 협상이 계속되었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지금의 한일관계처럼 양자 회담의 개최도 힘들고 양자 이슈의 토의도 힘든 경우에는 Track 2 대화를 이용해서 양자 접촉도 가능하며, 협의곤란한

Forum의 창설을 들 수 있는데, '역내안보대화가 필요하다'는 민간 싱크탱크 협의체(ASEAN ISIS)의 권고를 ASEAN 국가의 정상들이 받아들임으로서 ARF가 시작되었다. 즉, Track 2 협의체가 Track 1 차원의 협력을 견인한 것이다.¹⁷⁾ ARF는 출범이후 아태 지역 민간안보전문가의 협의체인 CSCAP(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안보문제에 관한 CSCAP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적으로 Track 2 협의체가 Track 1 차원의 협력을 보완하고 경우에 따라 견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물론 Track 2 외교가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다자안보협력이라는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본 극우파 지식인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민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대표보다 협력이나 평화를 지향한다는 보장이 없다. 민간전문가들이 정책결정자들에게 역내 국가들이 무력사용을 통한 자력구제를 포기하고 신뢰구축을 통해서 불신을 극복하며 협력의 습관을 축적하고 무임승차를 지양하고 공동의 노력을 행하도록 다자안보협력의 이익과 가치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지식과 자문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민간전문가들이 다자안보협력을 지향하지 않거나, 그 실현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자문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정책결정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민간전문가들이 다자안보협력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¹⁸⁾

정부 간 협력체와 민간협력체가 짝을 이루어서 상호 보완하고 견인하는 것은 아세안 중심의 제도나 과정에서 흔한 현상이다. 앞에서는 안보협력에서 정부 간 협력체와 민간 협력체가 짝을 이루는 예를 들었는데 경제분야나 일반적 협력관계에 있어서도 정부 간 협력체와 민간협력체가 짝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정부 간 협의체와 민간 협의체가 협력하는 주요사례를 알아보고 한아세안 협력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양자 이슈는 유보하고 협의가능한 다자적 이슈부터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는 사회화(socializing; socialization) 기능으로, Track 2 외교에 참여를 통해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지역이나 국제적 규범에 대한 이해의 제고도 가능하다. 이 역시 우리에게 유용할 수 있는 측면인데, 예컨대 북한이 Track 2 대화에 참가할 경우에는 지역이나 국제적 규범에 대한 북한의 이해를 높여서 궁극적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에 일원으로 편입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Ball, Desmond, and Brendan Taylor, "Reflections on the Track Two Proces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Soesastro, Hadi, et. al. eds., *Twenty Years of ASEAN ISIS: Origins, Evolution, and Challenges of Track Two Diplomacy*, ASEAN ISIS 2006

17) 유현석 교수처럼 당시 역내 세력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ASEAN ISIS의 역할에 대해 소극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 Hyun Seok YU, "Evaluating the Role of Regional Expert Network in Regional Security Institution Building: ASEAN ISI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RF,"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ume 49, Number 3, 2009

18) 이런 점에서 Track 2 외교의 한 전제조건은 규범과 지식을 공유하는 '인식 공동체'의 존재이다. 또 다른 전제조건은 민간전문가의 충의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정책결정자들의 존재이다. 동북아처럼 국가의 권위가 강하고 전문관료제가 확립된 지역에서는 민간전문가의 위상이나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4. 정부 간 협의체와 민간 협의체의 협력사례

1) ASEAN과 ASEAN ISIS¹⁹⁾

ASEAN ISIS는 동남아 각국의 외교안보 연구소를 회원으로 하는 ASEAN NGO이다. ASEAN Institutes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ASEAN ISIS는 단일한 기구(institute)가 아니라 느슨한 협의체(institutes)이다. NGO 이고 Track 2 외교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ASEAN ISIS 회원 연구소에는 민간 연구소뿐만 아니라 반민반관 연구소, 정부 연구소가 포함되어 있다.

동남아에는 ASEAN ISIS 회원기관보다 더 크고 더 조직화된 연구기관들도 있지만 ASEAN ISIS에 비견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ASEAN ISIS를 Track 2외교의 구심점으로 만든 것은 조직이나 구성 등 ASEAN ISIS의 ‘내부적 특성’이 아니라 ‘외부와 의 관계’이다. 구체적으로, ASEAN ISIS가 ASEAN 사무국 및 ASEAN 국가들과 갖는 관계이다. ASEAN ISIS는 동남아 대표적 연구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ASEAN 수준의 협의체로서, 이론적으로는 개별 연구기관이나 개별 국가가 아니라 ASEAN 지역 연구자들의 총의를 대변한다. ASEAN 국가들은 ASEAN ISIS의 이러한 대표성을 인정하여 ASEAN ISIS가 ASEAN 정책결정에 input을 줄 수 있는 채널을 공식적으로 제도화하였다.

ASEAN ISIS는 동남아 Track 2 외교와 사실상 동의어이다. 동남아 Track 2 외교의 역사는, ASEAN ISIS가 탄생하고 제도화되며, 단순한 외교안보연구소의 협의체에서 ASEAN 공식적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Track 2 기관(institution)으로 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CSCAP)의 설립도 동남아의 Track 2 외교가 ASEAN ISIS의 주도로 아태지역으로 확장된 결과로 볼 수 있다.

ASEAN ISIS가 처음부터 ASEAN 사무국 및 ASEAN 국가들과 특수한 관계를 갖게 된 것은 아니며, ASEAN ISIS의 역사 자체도 오래된 것이 아니다. 동남아에서 싱크탱크의 역사는 일천하며,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ASEAN ISIS의 역사도 마찬가지로 일천하다. 달리 말하면 동남아도 얼마 전까지는 동북아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동남아에서는 비교적 단시간 내 싱크탱크 협의체가 발달하였다. 동북아에 비해 동

¹⁹⁾ ASEAN ISIS의 기원과 진화, Track 2 외교와의 관계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자료는 ASEAN ISIS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발행된 다음의 책이다. Soesastro, Hadi, et.al. eds. *Twenty Years of ASEAN ISIS: Origin, Evolution and Challenges of Track Two Diplomacy*, ASEAN ISIS, 2006. 이 절의 내용은 위의 책을 주로 참고하였다. 한인택, “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 『JPI정책포럼』 23 (2014)도 참고하였다.

남아가 자원에 있어서 열세인 점을 생각할 때 동남아에서 싱크탱크 협의체가 발전한 현상을 경제수준이나 가용자원의 측면에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역사적, 문화적 요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70년대, 1980년대 동남아에서는 월남전 종전 이후 지역 안보의 미래, 특히 동남아에서 미국의 향방을 놓고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월남전 이후 동남아 안보질서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것이 당시 각국 정부와 안보전문가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는데, 지금의 ASEAN ISIS의 회원기관이 된 동남아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은 70년대 말부터 각종 회의에 참석하면서 지역 안보의 미래를 놓고 느슨한 ‘인식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와 UC Berkeley의 동아시아연구소가 주도적으로 동남아의 외교안보 연구자들을 정기적으로 소집해서 의견을 교환하게 함으로써 훗날 ASEAN ISIS 발족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1984년에 개최된 제1차 ASEAN Institutes 회의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만 존재하던 동남아 전문가들의 모임을 공식적인 모임으로 조직화한 첫 시도였다. ASEAN Institutes는 ASEAN ISIS의 전신으로, 4년 뒤인 1988년 정관이 서명되면서 ASEAN ISIS로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부터 1991년까지 10여 년간의 기간은 동남아 연구자들의 비공식적 만남들이 공식적인 연구자들의 모임으로 성장하는 기간이었다. 하지만 ASEAN ISIS는 1991/1992년 이전까지는 아직 본격적인 Track 2 외교 행위자로 진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ASEAN ISIS가 Track 2 외교의 핵심적 행위자로 등장하게 된 것은 ASEAN ISIS의 의견과 제안이 ASEAN 사무국과 ASEAN 국가들에 의해서 수용되면서 부터이다. ASEAN ISIS는 1991년 제 6차 ASEAN ISIS 총회에서 “A Time for Initiative”라고 하는 ASEAN ISIS 최초의 Memorandum을 ASEAN 국가들에게 제안하였다. 이 Memorandum을 통해서 ASEAN ISIS는 ‘아태지역 다자안보대화 (Asia Pacific Political Dialogue)’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는데, ASEAN 국가정상들이 이 Memorandum을 수용함으로써 ASEAN Regional Forum(ARF)이 탄생하게 되었다.

‘Asia Pacific Political Dialogue’는 동남아에서도 유럽의 CSCE 같은 다자안보협력을 재연하려는 동기에서 제안되었다. 하지만 제안자가 정부나 개인이 아니라 동남아 외교안보 연구기관을 대표하는 협의체였다는 점에서 유럽 CSCE의 경험과는 상이하다. 유럽의 경우, 다자안보 회의에 관한 최초의 제안은 1966년 소련의 코시긴 수상이 했고, 3년 뒤인 1969년 NATO가 이에 반응을 보이면서 헬싱키 프로세스가 태동하였다. 즉, CSCE는 정부대표 간 외교의 산물이고, Asia Pacific Political Dialogue(ARF의 원 구상)는 민간전문가 외교의 산물이다.

ASEAN 국가들이 ASEAN ISIS의 제안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1970년대 말/1980년대 초부터 1991년까지 10여 년간의 기간 동안 ASEAN ISIS 전문가들과 ASEAN 정부 인사들 간 신뢰가 구축된 결과이다. ASEAN 정부 인사들은 Memorandum의 내용뿐만 아니라 Memorandum을 낳은 프로세스의 “integrity”와 “credibility”를 높이 산 것이다.

이 Memorandum을 계기로 ASEAN SOM(Senior Officials’ Meeting: 고위관리회의)에 ASEAN ISIS 회원기관의 장들이 정기적으로 초청되기 시작함으로써, ASEAN ISIS가 ASEAN 국가들에게 조언과 제안을 하고, ASEAN 국가들이 ASEAN ISIS에게서 자문을 구하는 Track 1와 Track 2의 상호보완적 관계가 시작되었다.

ASEAN ISIS가 동남아 Track 2 외교의 핵심적 행위자로 부상한 후에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ASEAN ISIS의 활동이 더욱 확대되었다.

첫째는 회원기관의 증가로 애초의 5개 기관에서 이제는 10개의 회원기관을 보유한 협의체로 성장하였다. 회원기관의 증가는 미얀마가 아세안에 가입하는 등 동남아 다자 안보협력이 성공한 결과이지만, 한편으로는 ASEAN ISIS 내 이질성을 증가시키고 의사 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ASEAN ISIS 회원기관>

-
- Brunei Darussalam 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ic Studies(BDIPSS), Brunei
 - Cambodian Institute for Cooperation and Peace(CICP), Cambodia
 - Centre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Indonesia
 - Institute of Foreign Affairs(IFA), Laos
 -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ISIS), Malaysia
 - Myanmar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MSIS), Myanmar
 - Asia Pacific Pathways to Progress Foundation(APPFI), the Philippines*
 - Singapore Institute of International Affairs(SIIA), Singapore
 - The Institute of Security and International Studies(ISIS Thailand), Thailand
 -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DAV) Vietnam

* 필리핀의 경우 Asia Pacific Pathways to Progress Foundation(APPFI)이 The Institute for Strategic and Development Studies(ISDS Philippines)를 최근에 교체

둘째는 지역적인 확장으로 앞에서 언급한 CSCAP의 창설이 가장 중요한 사례이다. CSCAP은 ASEAN ISIS가 미국의 Pacific Forum CSIS, 한국의 서울국제포럼, 일본의 Institute for Global Peace와 협력하여 출범을 주도하였다. 셋째는 이슈 영역의 확장으로 전통적 안보문제에서 비전통 안보, 새로운 안보문제로 논의와 협력의 영역을 확장하

였다. ASEAN ISIS가 비전통 안보와 신 안보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중요해지고 전통적 안보의 위협이 감소한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동시에 전통적 안보문제에 관해서는 더 이상 민간전문가들이 정부에 비해서 지적인 우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현실을 반영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다.

2) ARF와 CSCAP²⁰⁾

아태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CSCAP)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ASEAN ISIS가 한국, 미국, 일본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확장된 것이다. CSCAP은 1992년부터 출범이 논의되어 1993년에는 정관이 채택되었다. 당초에는 ASEAN 국가와 한미일이 회원국이었으나, 현재는 출범시보다 크게 확대되어, 남북한을 포함 21개 정회원과 1개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원국에는 그 나라의 민간전문가들과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국별 위원회(committee)가 있다. 한국 위원회(CSCAP Korea)는 1994년에 설립되었다.

CSCAP은 ASEAN ISIS와 유사하게 외교안보 분야 민간전문가의 협의체로서 아태지역 다자안보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ASEAN ISIS가 ASEAN 국가들과 ASEAN 사무국에 대해 자문과 조언을 하는 Track 2 기관인 것처럼 CSCAP은 ASEAN Regional Forum에 대하여 자문과 조언을 수행하는 Track 2 기관이다. ARF가 특정한 안보 이슈에 대해 연구를 요청하면 CSCAP은 study group (구 working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그 연구결과를 ARF에 보고한다. Study group 회의 등 CSCAP 활동에는 개인 자격으로 정책결정자들도 참여하기도 하고, ARF 회의에는 CSCAP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하기도 한다. 그런 기회에 이루어지는 ‘정책대화’를 통해서, 정책결정자들이 알고 싶어 하는 사안이나 주제 등이 민간전문가에게 전달되며, 민간전문가들의 연구결과와 건의사항이 정책결정자에게도 전달되어 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CSCAP의 조직을 보면, ASEAN 국가와 비ASEAN국에서 각각 1인이 선출되는 공동의장(co-chair)이 있고, CSCAP의 활동을 총괄하는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

20) CSCAP 의 기원, 역사, 운영, 성과, 평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들이 유용하다. 이재현, “CSCAP 과 아태 지역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 『JPI 정책포럼』 24 (2014) Ball, Desmond,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Its Record and Its Prospects," *Canberra Papers on Strategy and Defense* No. 139 (2000); Ball, Desmond, and Kwa Chong Guan, *Assessing Track 2 Diplomacy in the Asia-Pacific Region: A CSCAP Reader*, 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2010)

가 있어서 연 2회 개최된다. 운영위원회는 상반기에는 CSCAP 사무국이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고 하반기에는 다른 회원국가에서 개최된다. 한편 CSCAP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된다.

CSCAP의 연구기능은 수시로 열리는 study group(구 working group)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신뢰구축이나 예방외교 등 다자안보협력에 관한 주제들, 남중국해나 북태평양 안보협력 등 지역안보에 관련된 주제들, 인간안보 등 비전통안보에 관한 주제들, 초국가 범죄나 사이버 공격 등 신안보에 관련된 주제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에 관련된 주제 등이 주요한 연구주제다. study group의 연구결과는 ARF에 보고된다.

CSACAP study group에 대해서 비판이 없는 바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전문가들이 민감한 안보문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자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지역의 이해를 염두에 두고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CSCAP은 ARF의 형성기에 절대적인 공헌을 하였고 국가 간 신뢰의 부족을 민간전문가들의 신뢰를 통해서 메움으로써 아태 지역 다자 안보협력이 시작되고 발전하는데 공헌을 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3) 아세안+ 3와 NEAT

NEAT(Network of East Asian Think Tanks)는 정부 간 협의체인 ‘아세안+ 3’에 상응하는 민간협의체이다. NEAT의 창립은 아세안+ 3 정상회의의 요청에 따라 탄생한 제 1차 동아시아 비전 그룹(EAVG)의 보고서에서 제안되었고, 동아시아 연구 그룹(EASG)에서 설립을 권고하였다. 아세안+ 3 정상회의에서 EASG의 설립 권고를 받아들임으로써 2003년에 NEAT가 탄생하게 되었다.²¹⁾

NEAT는 아세안+ 3의 협력강화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에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하여 연구를 하고 아세안+ 3 정상회의에 권고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

²¹⁾ NEAT의 구조나 운영에 관한 정보는 다음의 논문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다.

Wong, John, "Think Tanks in East Asia in Need of More Cooperation and More Networking: NEAT after its Ten Years," *East Asian Policy* 04: 91-96, 2010; Sinaga, Obsatar Tirta N. Mursitama and Maisa Yudono, "Epistemic Community and the Role of Second Track Diplomacy in 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28 (1): 36-44, 2013; Mursitama, Tirta N., "Second Track Diplomacy in ASEAN+ 3: The Case of Indonesia and 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NEAT)," *International Affairs and Global Strategy*, 5: 5-10, 2012.

<Country Coordinators for NEAT>

-
- Brunei Darussalam Institute of Policy and Strategic Studie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Brunei
 - General Department of ASE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Cambodia
 - Center for East Asian Studies, 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China
 - Center for East Asian Cooperation Studies, University of Indonesia, Indonesia
 - The Japan Forum on International Relations, Inc. Japan
 - Korean Institute of South East Asian Studies (KISEAS), Korea
 - Institute of Foreign Affair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Laos
 -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ISIS), Malaysia
 - Myanmar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ISIS), Myanmar
 - 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 Philippine
 - East Asian Institut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Singapore
 -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Thammasat University, Thailand
 -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Vietnam
-

NEAT는 아세안+3 국가의 싱크탱크들을 회원으로 하고 있다. 멤버십은 개방되어 있으며 영구적이지 않다(no permanent membership). 위의 리스트는 각국별로 간사(country coordinator)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들이다. 이 리스트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 싱크탱크가 잘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외교부내에 있는 연구소나 심지어는 외교부내 한 부서가 간사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아울러 중요한 점은 NEAT는 ASEAN ISIS 등 기존에 존재하는 Track 2 기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ASEAN ISIS의 한계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고 ASEAN ISIS는 ‘다자안보협력’에 관련된 민간협의체이기 때문에 NEAT의 기반이 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²²⁾ NEAT는, 기존에 별 다른 관계도 없었고, 규범이나 지식을 공유하지도 않았던 기관들을—달리 말하면 ‘인식 공동체’를 구성하지 않고 있었던 기관들을—묶어서 일시에 아세안+3의 공식적 Track 2 협의체로 출범시킨 것이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동남아와 동북아에서 아시아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높았기 때문에 NEAT는 공유하는 규범이나 지식이 미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활발히 활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시아 금융위기 직후에 강했던 아시아 지역주의의 열기도 점차 사라지고, ‘+3’에 해당하는 한중일 관계가 양국 간의

22) 아세안+3가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정부 간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경쟁,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등으로 경색되고 난 이후에는 NEAT의 활동이 생기를 상실하였다.²³⁾ NEAT의 홈페이지 (<http://www.neat.org.cn/main.htm>)도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다.

NEAT에서는 3 가지 회의가 개최된다.²⁴⁾

첫째, country coordinator meeting(CCM) 으로 CCM은 NEAT의 의결기구의 역할을 한다. 각국을 대표하여 1명씩 참석하여 총 13명으로 구성되며 해마다 NEAT의 회장을 CCM에서 선출한다. CCM에는 각국의 대표자 외에 1~3명이 배석할 수 있다. CCM은 1년에 두 번, 연초와 연말에 개최되는데, 연초 회의에서는 그해에 다룰 연구의제나 working group(WG) 개최계획을 결정하는 등 한해 동안 NEAT의 방향을 설정한다. 연말에 개최되는 CCM에서는 수행된 WG의 결과를 승인하고 아세안+3 정부에 전달할 권고안을 협의하여 작성한다. 권고안은 종종 NEAT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²⁵⁾

둘째로 working group(WG) meeting 이다. WG의 주제는 country coordinator가 제안하고, CCM에서 그 제안을 채택하면 WG이 개최되게 된다. 한 나라가 단독으로 WG을 제안할 수도 있고 여러 나라가 연합으로 WG을 제안할 수도 있다. 제안국가가 WG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²⁶⁾ WG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는 적은 거의 없다. WG은 논의의 장인 동시에 같은 주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각국의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WG을 제안한 country coordinator는 CCM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WG의 성과는 인터넷(이메일)을 통하여 공유된다.

셋째, Annual Conference(AC)이다. AC는 연말에 개최되는 CCM과 back-to-back으로 개최된다. AC의 목적은 WG의 연구결과를 널리 공유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AC에는 NEAT 관계자들만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자, 학자, 언론, 시민사회 인사들도 초청된다.

23) 초기에 개최된 NEAT 회의에 참석한 경험이 있는 국립외교원 배궁찬 교수에 의하면 NEAT는 이미 출범직후부터 중국과 일본의 대립으로 인해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24) NEAT는 사무국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홈페이지도 없다. 다행히 2003년 이후 올해까지 개최된 NEAT 회의의 개요, 메모랜덤, Working Group의 주제와 보고서 등은 일본의 Council on East Asian Community(CEAC)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ceac.jp/e/neat.htm>

25) 전체적 '총의'보다는 개별 회원국의 입장을 종종 반영한다는 면에서 NEAT의 권고안은 현실적인 동시에 한계가 있다.

26) 제안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ASEAN 국가들은 제안을 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4) APEC와 PECC

ASEAN과 ASEAN ISIS, ARF와 CSCAP, 아세안+ 3와 NEAT만큼 관계가 긴밀한 것은 아니지만, 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은 ‘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PECC)’라는 Track 2 협의체와 협력관계에 있다. PECC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한 이슈에 관해서 논의하는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정부관계자, 기업가, 학자들로 구성된 Track 2 협의체로서, Track 1 협의체인 APEC의 공식적인 옵서버다. PECC의 대표들은 APEC회의에 참석하고 APEC회원국의 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와 정보에 대해서도 접근할 수 있다. PECC는 매년 APEC 각료 회의에서 PECC 선언(PECC Statement)을 발표하여 주요 경제 사안에 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APEC 통상 및 재무 장관회의에서 권고안(Recommendation)을 발표하고 APEC SOM에 참여하여 성명(Statement)을 제출함으로써 분야별 연구 활동 및 정책 제안 프로세스에 참여하고 있다.²⁷⁾ 다른 Track 2 협의체에 비해 PECC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의 하나는 PECC가 “proto-network”이기 때문이다. 싱크탱크가 실제로 존재하는 ASEAN ISIS와는 대조적으로 PECC는 느슨한 네트워크에 불과하다. PECC는 “경제계, 학계, 정부의 고위인사들의 파트너십”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다.²⁸⁾

27) “PECC” <https://www.kiep.go.kr/sub/pecc.jsp>

28) ASEAN ISIS, CSCAP, 그리고 PECC에 대한 비교는 다음을 참고. Zimmerman, Erin & Diane Stone, “ASEAN think tanks, policy change and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licy and Society* Vol. 37, No. 2, pp.260-275.

5. 싱크탱크를 활용한 한아세안 협력증진 방안

정부차원 한아세안 협력의 정점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아세안과 대화관계를 수립하였고 내년에는 대화관계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제3차 특별정상회의가 열린 예정이다. 제3차 특별정상회의는 신남방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동남아에서 정부 간 협의체인 ARF가 탄생이나 운영에 있어서 민간협의체인 ASEAN ISIS와 CSCAP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한아세안 협력이 최대한으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도 힘을 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의 민간전문가의 지식을 활용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 있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정부차원의 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한국과 아세안 내 학계나 NGO, 시민사회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합하여 정부 간 협의체에 전달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지지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그만큼 한아세안 협력은 더욱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관적일 필요는 없다. 아세안의 경험을 보면 한아세안 민간협의체의 부재라는 문제는 비교적 단시간 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때문이다. 아세안 국가 간 안보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ASEAN ISIS는 아세안의 가장 대표적인 Track 2 기관인데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역사가 별로 길지 않다. 특히 ARF 창설되기 이전의 ASEAN ISIS 역사는 얼마 되지 않는다. ASEAN ISIS의 경험은 창설되지 얼마 되지 않은 민간협의체도 정부 간 협력을 견인하고 보완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ASEAN ISIS 뿐만 아니다. ARF의 활동을 돕는 민간협의체인 CSCAP도 ARF가 출범하기 겨우 1년 전에 결성되었다. 아세안+3를 지원하는 민간협의체인 NEAT도 창설제안(2002년)에서부터 설립(2003년)까지 1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특히, CSCAP와 달리 NEAT의 경우는 ASEAN ISIS와 같은 기준에 존재하는 민간협의체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백지에서 시작하였다. 하지만 불과 1년 사이에 아이디어가 현실로 실현된 것이다. 한아세안정상회의를 보완하고 견인할 수 있는 한아세안 민간협의체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며, ASEAN ISIS, CSCAP, NEAT의 사례를 잘 참고하여 추진한다면 실제로 구축이 가능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한아세안 민간협의체 구축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정책제안 : 한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 (가칭 ASEAN-ROK ISIS) 구축

1. 개요

- 제3차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 ‘ASEAN-ROK ISIS’(가칭)를 제안하여, ASEAN-ROK ISIS의 주도로 한아세안 민간전문가들이 한아세안 관련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정책대안을 개발하여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한아세안 정부협의체에 보고할 수 있게 함.
 - ASEAN-ROK ISIS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고 공인되어 있는 ASEAN ISIS를 기반으로, 한국의 싱크탱크들을 추가로 참여시키는 포맷이 될 것임.
 - NEAT에서처럼 각국별로 country coordinator를 두어 아세안에서는 ASEAN ISIS 회원기관이 country coordinator 역할을 함.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총괄하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country coordinator를 맡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인력과 예산만 보강된다면 제주평화연구원도 country coordinator를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음.

2. 운영

- ASEAN-ROK ISIS는 매년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제주포럼을 venue로 활용하여 연례 총회(annual conference)와 CMM(country coordinator meeting)를 개최하고, 연중 수시로 한국과 아세안 각국을 돌아가며 working group meeting을 개최하여 그 결과를 CMM과 한아세안 정부협의체에 보고하며 연례총회에서도 발표.
 - 제주도는 비자면제 지역이기 때문에 출입국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장점이 있음.
 - ASEAN-ROK ISIS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한아세안협력기금을 통하여 지원
 - * 참고로 이와 같은 구상은 현재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CSCAP(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의 구성 및 운영 방식, 그리고 ASEAN+3 정부협의체를 지원하는 ASEAN+3 싱크탱크협의체인 NEAT(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반영한 것임.
 - ** EAVG I에서 NEAT와 같이 제안한 East Asia Forum이 2015년 제주포럼의 특별세션으로 개최된 적이 있음.
 - CMM에는 각국에서 1명씩 대표가 참석하며, 공동위원장은 한국 측 1명, 아세안 측 1명 (해당연도 아세안 의장국 출신)이 맡음.
 - 홈페이지 유지 및 회의 자료 축적 등 운영과 행정적 지원은 제주평화연구원 내 설치되는 ASEAN-ROK ISIS 사무국에서 맡음.
-

정부 간 협력체와 민간협력체가 짝을 이루어서 상호 보완하고 견인하는 것은 아세안 중심의 제도나 과정에서 일반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한아세안협력에 있어서도 정부 간

협력체와 민간협력체를 짝지어서 상호보완하고 견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로서는 한아세안정상회의에 상응하는 민간협의체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ASEAN-ROK ISIS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ASEAN-ROK ISIS가 구축되고 한아세안정상회의와 짝을 이루게 된다면 한아세안협력이 한층 더 제도화되고 지속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한아세안정상회의와 짝을 이루는 민간협의체에 대한 구상은 ASEAN-ROK ISIS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아는 한 아직까지 ASEAN-ROK ISIS 외에는 구체적으로 제안된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 없다. 따라서 ASEAN-ROK ISIS 제안의 강점이나 약점에 대한 비교평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ASEAN-ROK ISIS에서는 최소한 NEAT가 보여준 문제점들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

NEAT의 경우 초기에는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나 점차 활기를 상실하였는데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1) 이전까지 아무런 관계가 없던 연구기관들로 NEAT를 구성하였고, (2) 사무국이 부재하며 (홈페이지 유지 중단, 회의자료 상실), (3) working group meeting의 개최에 드는 비용을 제안국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었으며, (4) 한중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반복을 막고자 ASEAN-ROK ISIS는 ASEAN ISIS라는 기존의 민간협의체(인식공동체)를 기반으로 하고,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고 연례적으로 제주포럼을 개최하고 있는 제주평화연구원에 사무국을 설치하며, working group meeting 개최 등 ASEAN-ROK ISIS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아세안협력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아서 NEAT의 경우와 달리 경제적 부담 때문에 아세안 국가들의 참여가 제약되는 문제를 개선하였다. 특히 이번 정부 아래에서 한아세안 협력기금의 재원이 계획대로 확충된다면 한아세안 싱크탱크 협의체의 결성이나 운영에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²⁹⁾

한아세안 관계는 ‘아세안+1’의 관계라서 NEAT의 활동에 방해가 되어온 한중일 관계의 악화가 한아세안관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아세안의 특정국가와 한국간의 양자관계가 나쁘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앞서서도 말했듯이 한국과 아세안국가들 사이에는 아직까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문제가 없다. 즉, 양자관계가 한아세안

²⁹⁾ ASEAN ISIS의 결성과 운영에 있어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재단들의 기여가 컸다. 미국과 캐나다의 재단들이 한 역할을 한아세안관계에서는 한아세안협력기금이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SEAN ISIS의 활동이 최근 들어 부진한 이유 중의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의 재단들의 지원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관계의 발전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은 아직까지 높지 않다. 특히 박항서 열풍으로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서 월남전 참전과 관련된 문제나 한국기업과 베트남 근로자 간의 노사문제 등이 심각한 양국 간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하지만 미래에는 지금까지 잠잠했던 문제들이 쟁점화될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 월남전 참전문제, 한국기업과 현지 근로자간의 노사문제가 쟁점화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고, 한아세안 간 무역불균형도 개선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협의체의 구축이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잠재적 문제들에 대해 양측의 민간전문가들이 자유롭게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한국과 아세안국가의 정부에 공동으로 대응을 촉구하며 해결에 필요한 전문지식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6. 마치며

그동안 지역적으로는 동북아, 이슈에 있어서는 핵문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던 한국외교가 문재인 정부의 출범 후 다변화되고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아세안과의 협력이 증대되면 우리의 경제적, 외교적 이익도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아세안 협력을 증진함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우리 방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이 그동안 축적해온 협력의 전통과 관행을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협의, 합의, 비공식주의를 존중하는 협력의 전통이 있으며, 정부차원의 협력은 민간차원의 협력에 의하여 보완되고 심지어 견인되었다. 앞으로 한아세안 협력이 증대되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한아세안 정부 간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협력을 지원하는 민간협의체를 육성하여 정부차원 협력과 민간차원 협력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이 바로 그러한 방식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 시점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지원할 수 있는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ASEAN과 ASEAN ISIS, ARF와 CSCAP, 아세안+3와 NEAT의 협력사례를 참고하여 한아세안 민간협의체(가칭 ASEAN-ROK ISIS)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ASEAN-ROK ISIS가 구축되어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정부차원의 협의체에서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 조사연구를 수행하며, 한국과 아세안 내 학계나 NGO, 시민사회의 의견이나 요구를 수합하여 정부 간 협의체에 전달할 수 있다면, 한아세안 협력에 대한 국내적, 국제적 지지기반이 확충될 것이며, 그만큼 한아세안 협력은 더욱 더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배궁찬, “ASEAN의 아태지역 다자안보구상과 전망,” 『동남아시아연구』 2권2호 1993
- 이서향, “동북아 다자안보 대화의 현황과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1997.08.06
-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체: 실태분석과 평가,” 한용섭 외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나남출판, 2005.
- 이재현, “신남방정책이 아세안에서 성공하려면?”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
2018-04.
- “CSCAP과 아태 지역 안보협력: 평가와 함의,” 『JPI 정책포럼』 2014-24
- 최경희, “2019년 한아세안 관계 30주년과 새로운 동아시아 지역질서,”
제주평화연구원 주최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세션: 한아세안 협력’ 발제문
(2018년 12월 7일 서머셋 팰리스)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과 지경학적 위치: 중력모형(Gravity Model)의 적용,” 2001
- 한인택, “지속가능한 신남방정책: 필요성과 방안,” *JPI PeaceNet* (2018.11.12)
- “동남아 Track 2 외교의 경험과 동북아에의 함의:
ASEAN ISIS의 역할을 중심으로,” 『JPI 정책포럼』 2014-22
- Ball, Desmond, “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Its
Record and Its Prospects,” *Canberra Papers on Strategy and Defense*
No. 139 (2000)
- Ball, Desmond, and Brendan Taylor, “Reflections on the Track Two Process in
the Asia-Pacific Region,” in Soesastro, Hadi, et. al. eds., *Twenty Years
of ASEAN ISIS: Origins, Evolution, and Challenges of Track Two
Diplomacy*, ASEAN ISIS 2006
- Ball, Desmond, and Kwa Chong Guan, *Assessing Track 2 Diplomacy in the
Asia-Pacific Region: A CSCAP Reader*, Singapore: Booksmith, 2010)
- Hernandez, Carolina, “민간전문가(Track 2) 외교의 재조명,”
JPI PeaceNet 2014-43

KIM BENG PHAR, "Asia's Informal Diplomacy," *Harvard International Review*
(May 6, 2001)

Mursitama, Tirta N., "Second Track Diplomacy in ASEAN+3: The Case of
Indonesia and Network of East Asian Think-Tanks (NEAT)," *International
Affairs and Global Strategy*, 5: 5-10, 2012.

Nguyen Hung Son, "베트남의 Track 2 외교 경험: 북한에의 함의," *JPI PeaceNet*
2015-12

Park, Bun-soon, "Korea-ASEAN Economic Cooperation and its Promotion"

Sinaga, Obsatar Tirta N. Mursitama and Maisa Yudono, "Epistemic Community
and the Role of Second Track Diplomacy in East Asia Economic
Cooperation," *World Applied Sciences Journal* 28 (1): 36-44, 2013

Soesastro, Hadi, et.al. eds. *Twenty Years of ASEAN ISIS: Origin, Evolution
and Challenges of Track Two Diplomacy*, ASEAN ISIS, 2006

Wong, John, "Think Tanks in East Asia in Need of More Cooperation and
More Networking: NEAT after its Ten Years," *East Asian Policy* 04:
91-96, 2010

Yu, Hyun Seok "Evaluating the Role of Regional Expert Network in Regional
Security Institution Building: ASEAN ISI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ARF,"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Volume 49,
Number 3, 2009

Zimmerman, Erin & Diane Stone, "ASEAN think tanks, policy change and
economic cooperation: from the Asian financial crisis to the global
financial crisis," *Policy and Society* Vol. 37, No. 2, pp.260-275.

Abstract

In promoting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ASEAN under its New Southern Policy, it is important for South Korea to understand how ASEAN countries cooperate with one another and apply that knowledge to South Korea-ASEAN relations. To be specific, the ASEAN Way and track 2 diplomacy facilitate cooperation among ASEAN countries. For South Korea to improve its relations with these countries, it needs to follow the ASEAN Way and promote and utilize track 2 diplomacy. Since there is no equivalent of ASEAN ISIS in South Korea-ASEAN relations, this essay proposes an ASEAN-ROK ISIS, a network composed of think tanks in South Korea and ASEAN countries.

Key Words : New Southern Policy, ASEAN Way, Track 2 diplomacy, ASEAN-ROK ISIS